

'산단에서도 문화공유도시, 군산'

군산문화도시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 전북산학융합원과 협약 체결

군산시는 지난 2일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전북 지역 산업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사)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사)전북산학융합원 3곳과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문화분야 교류 및 소통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장 유병길)과 (사)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장 이성기), (사)전북산학융합원(원장 나석훈),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화숙)가 산업과 문화 분야에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입주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산단 내 청년 근로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산단에서도 문화공유도시, 군산'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호원대학교와 연계한 K-Pop 공연, 산단 내 축구경기장을 활용한 스포츠 행사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화숙 군산문화도시센터장은 "협약 기관들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지난 2일 전북지역 산업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사)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사)전북산학융합원 3곳과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문화분야 교류 및 소통'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 함께 추후 정기적으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산단 근로자 및 가족 뿐만 아니라 군산 시민들이 문화로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공유도시, 군산은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시민커뮤니티 조직

등과 함께 긴밀한 유대 회복 및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https://www.kunsan.ac.kr/gunsancc>) 및 SNS(www.facebook.com/GunsanCultureCente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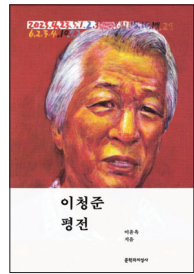
소설가 이청준, 그의 삶 · 그의 작품

신간도서 '이청준 평전'

한국 현대문학 표징 소설가 미백(未白) 이청준(1939~2008)의 15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작품을 다시 읽어주는 평전이 나왔다. 이청준은 1965년 '사상계' 신인 작품 모집에 단편 소설 '퇴원'이 당선돼 등단했다. 이후 단편 '입부', '풀', '무서운 토요일', '굴레' 등을 발표했다. 1968년 '병신과 머저리'로 제12회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이후 '소문의 벽', '등산기' 등을 발표해 현실과 이상 사이 갈등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고통을 묘사했다.

2006년 여름 폐암 진단을 받고 2008년 7월 병세가 악화던 70세에 숨을 거뒀다. 1958년 광주주고 1학년 재학시절 '학원'지에 발표한 단편 '달밤'과 1965년 사상계 신인문학상 수상작 '퇴원', 1967년 첫 장편 '조용사'부터 미완의 장편 '신화의 시대'(2008)까지 생전 그가 쓴 소설은 장편 17편, 중단편 155편, 유일한 희곡 '제3의 신'까지 170편이 넘는다.

'이청준 평전'(문학과지성사)은 평론가 이윤욱이 작가가 우리 곁을 떠난 후 15년



이청준 평전

가까운 시간을 작가가 남긴 초고와 최초 발표지면, 수십 년에 걸쳐 출판사를 달리해 간행된 단행본 전부를 훑어보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저자는 작가의 생물학적 일대기와 문학적 연대기를 교차하며 기술하고 있다. 작가 생의 큰 번곡점마다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인물과 사건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기억과 기록, 증언을 찾아 오래 발품을 팔았다. 서울과 광주, 용인과 장흥 등에서 채집한 그들의 목소리를 이 책에 담았다.

서른네 권 전집으로 묶인 작가의 작품 텍스트들 외에 일기와 메모, 가족, 친구,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읽고, 작가의 소설을 읽고 개인사적, 시대사적 배경 탐문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뉴스1

군산대 인문도시센터, '정담시네마 시즌2' 시작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가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담시네마 시즌2'를 준비해서 시민 곁을 찾는다.

'정담시네마 시즌2'는 군산의 문화관광 핵심 주제인 근대의 의미를 영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다룬, 시즌2는 영화 전문가와 시민 영화애호가들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영화의 세계를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담시네마 시즌2 '영화 장르의 세계'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군산세관의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총 12회 열릴 예정이다.

정담시네마 프로그램은 금강역사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인디라이의 김대현 감독이 기획했고, '삼포 가는 길'의 작가인 황석영 선생과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의 진행으로 한국형 로드무비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등 영화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영화장르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담시네마 시즌2의 첫 프로그램은 김윤아 영화평론가의 '일본신화와 미야자키 하야오'를 시작으로, 노광우 영화평론가의 '옛날 옛적 서부극에서', 김경욱 영화평론가의 '스릴러, 그리고 기생충' 등을 주제로 영화의 세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군산의 근대를 대표하는 군산세관 참고는 군산세관이 2017년부터 시민에 개방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 군산대 인문대학협력센터와 군산문화협동조합이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과 연주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오원환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장(미디어문화학과 교수)은 "이번 정담시네마 프로그램이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하는 언어를 받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개방과 열정의 국제 문화도시 군산' 잼버리 응원 나서

잼버리 영의활동 '군산 잼버리 로드' 서 깜짝 공연 · 기념품 제공

군산시와 군산 문화 도시센터(센터장 이화숙)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잼버리 영의활동인 '군산 잼버리 로드'에서 깜짝 공연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잼버리 영의활동은 지난 2일부터 5일,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총 3,200명 잼버리 참가자가 군산 시간여행 마을과 공설시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산 문화 도시센터는 공연 외에도 이들 전원에게 2천만 원 상당의 기념 셔츠를 제공한다.



특히, '잼버리 문화 로드-군산 시간여행 코스'에서 관내 초등학교 30여 명으로 구성된 '꿈의 댄스' 팀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인 '아리랑'의 노래에 맞춘 플래시몹으로 K-댄스의 멋진 모습을 선보인다.

'개방과 열정의 국제 문화도시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산 문화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제공할 이번 공연은 4, 5, 9, 10일 오전 11시 50분에 진포해양테마공원 무대 등에서 진행된다.

이화숙 군산 문화 도시센터장은 "춤이라는 세계 언어를 통해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알리고 세계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군산이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멋진 도시임을 이번 세계 스카우트들 추억 속에서 공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한식창의센터, 맛손클럽 4기 참가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은 오는 22일까지 맛손클럽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당에 따르면 '손을 맞잡고, 손맛을 배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맛손클럽은 한식창의센터가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주음식문화 아카데미로, 음식 문화를 배

우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월 1기 모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0명의 3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전주시에서 거주 중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후 맛손클럽으로 선정된 20명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주에 걸쳐 이론과 실습,

식문화 탐방 등의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종료 후에는 한식창의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아울러, 식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을 받는 등 한식창의센터와 함께 할 수 있다.

신청은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jeonjufoodstory.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6시~8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출연진 국민MC - 서정우
가수 - 백미현(난바람, 넌눈물) 이태원(솔개, 여인아) 박영일(축제) 노스텔지어(별미소) 백영주 최영준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